

##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 수 립\*

Oregon State University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 189쌍을 대상으로 상담자용, 내담자용 설문을 실시,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측정모형에서는 상담과정의 매개변인들로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 관계형성, 작업동맹을 선정하였다. 우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변인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지혜와 매개변인들의 관계를 가정하여 크게 두 가지 경쟁모형을 선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제1경쟁 모형은 상담자의 지혜가 각각 사례개념화, 역전이조절, 관계형성을 매개로 작업동맹, 상담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이며, 제2경쟁 모형은 상담자의 지혜가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을 매개로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고, 관계형성이 작업동맹을 매개로 상담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이다. 검증 결과, 제2경쟁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첩모형 중 더 적합한 대안모형을 탐색한 결과, 사례개념화와 역전이조절간 공분산을 설정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지혜,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 관계형성, 작업동맹, 상담과정, 상담기법, 상담성과, 상담자, 내담자,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 본 연구는 이수림(2008)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수림, Postdoctoral researcher, Oregon State University, Corvallis, OR, USA

E-mail : sulimhm@hanmail.net

상담과정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상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상담과정 변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장재홍, 권희경, 2002). 이 세 가지 변인은 상담에서 모두 중요하나, 그 중 상담자 변인이 중요한 이유는 상담자가 상담에 기여하는 요인을 밝혀내고 그 요인을 향상시키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자 과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 변인과 상담 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상담자 경력과 상담과정 및 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로 수행되어왔다. 즉, 숙련상담자들이 초심상담자들에 비해 사례개념화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희, 김지현, 2008; 손은정, 이해성, 2002; 이윤주, 김계현, 2002; 전재영, 2001; Brammer, 1997; Cummings, Hallberg, Martin, Slemon, & Hiebert, 1990), 상담자의 경력이 많고 전문성이 높을수록 역전이 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 2003; 신교숙, 2000; 양경연, 2005; 장세미, 1999). 또한, 숙련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를 더 잘 맺고, 인간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신감, 수용성, 솔직성, 인내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영, 1995; 심홍섭, 1998; Hersoug, Bøggwald, & Høglend, 2003).

이렇듯, 상담자 경력이 상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는 상담경력이 쌓일수록 상담자가 갖게 되는 어떤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이 특성들은 상담자의 전문성이 발달할수록 갖게 되는 상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변인들이다(홍수현, 2001; Holloway & Wolleat, 1980; Spengler & Strohmer, 1994; Suit & Paradise, 1985). 이러한 상담자의 특성은 상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담자의 인지적 변인으로써 상담자의 자아분화나 상위인지자각, 정서적 변인으로써 자기효능감, 불안이 상

담에 영향을 주었으며(유혜진, 2006; 장재홍, 1999; 홍수현, 2001; 황인호, 2004), 상담자의 공감적 태도, 수용적, 온정적, 흥미적인 태도, 친화적 행동, 긍정적 대인관계가 자의 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권희경, 1999; 오충광, 2007; Hersoug, 2004; Hersoug, Høglend, Monsen, & Havik, 2001; Hersoug, Monsen, Havik, & Høglend, 2002; Hilliard, Henry, & Strupp, 2000; Sandell, Lazar, Grant, Carlsson, Schubert, & Broberg, 2007).

이러한 상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특성은 지혜 개념과 관련지어 고려해 볼 수 있다. Baltes와 Staudinger(2000)는 지혜를 ‘삶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정의하였으며 개인의 인지적 탁월성을 중시하였다. Holliday와 Chandler(1986)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으로 탁월한 이해력, 판단력과 의사소통 기술, 유능성,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겸손을 들었다. Ardel(2003)는 지혜는 인지적, 반성적, 정서적 차원의 종합으로 정의하였다. 인지적 차원은 인생과 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하는 욕구를 일컬으며 반성적 차원은 자기자각, 자기통찰, 조망수용 능력을 일컫는다. 정서적 차원은 타인에 대한 공감, 자비를 일컫는다. 이수림(2008)은 지혜는 인지적 측면으로는 높은 안목과 통찰력, 탁월한 판단력을 의미하며, 개인 내적인 측면으로는 자아의 균형적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것, 관계적 측면으로는 타인을 향한 긍정적 관심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지혜의 개념은 인지적 탁월성, 정서적 균형 및 안정성, 관계에서의 긍정적 태도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숙련상담자들과 초심상담자들의 비교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숙련상담자들이 갖는 특성들이 지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수림과 조성호(2009)는 숙련상담자와 초심상담자, 일반인간의 지혜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숙련상담자의 지혜가 초심상담자와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지혜가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지혜가 갖는 긍정적 측면으로서, 지혜는 협동, 이해, 돌봄 등 긍정적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Ardelt, 2000; Kinnier, Tribbensee, Rose, & Vaughan, 2001; Kunzmann & Baltes, 2003). 즉, 지혜는 자신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더 큰 전체적인 관심으로 이동하게 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 돌봄과 같은 행동을 수반하게 한다(Orwoll & Perlmutter, 1990).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지혜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Johnson, 1995). Kramer (2000)는 지혜가 상담과 관련되며, 상담자는 타인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을 존중하며 높은 성찰능력과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특히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들의 가치, 생각, 행동, 결정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장면을 제공하며, 적극적 관심을 보여 그들에게 유용한 기술들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내는, 판단하지 않고 자비로운 태도로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Smith와 Staudinger, Baltes(1994)는 상담자의 지혜가 치료자의 효과적 치료결정과 개입 및 결과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치료과정을 통해 내담자들은 개인의 삶에 대한 지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키고 삶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상담에서의 지혜 개념과 연결시켜볼 때, 상담자의 지혜가 내담자에게 긍정

적 영향을 끼치며, 내담자의 상담성파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지혜 연구 분야에서 상담자의 지혜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했듯이, 상담 연구 분야에서도 지혜가 상담자에게 필요한 요소로 강조된 바 있다(노안영, 2001; Hanna & Ottens, 1995; Karlin, 2002; Ruisel, 2005). 이수림과 양미진(2009)은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에서의 지혜 발달 경험을 질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들은 상담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으며 그들의 지혜가 촉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도움 받은 상담자 요인은 상담자의 관심과 배려, 자기공개, 신뢰와 믿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혜가 주요 상담과정의 매개변인들을 통하여 상담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지혜연구는 성인발달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담분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그동안 지혜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담자교육 분야에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하여 인지발달 및 성숙 등에 관심을 두어왔다. 또한, 지혜와 관련될 수 있는 변인들으로써 상담자 자기자각, 자아 통합, 상위 인지, 정서적 안정성, 공감, 대인관계 기술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인들은 지혜 개념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의 포괄적 개념으로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즉,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성파

간에는 상담과정 변인들이 매개할 것이다.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과정과의 관계는 기존의 지혜연구와 이론들, 지혜와 관련된 개념과 상담과정 연구들을 통해서 추론하여 매개변인들을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의 지혜는 이수림(2008)의 정의를 토대로 하였으며,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성고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매개변인들로 포함시킨 변인들은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 관계 형성, 작업동맹이다.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의 인지적·행동적·정서적·대인 관계적 측면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상담목표와 상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Loganbill & Stoltenberg, 1983). 사례개념(공식)화는 사례를 간략하게 개념화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우선적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를 식별하여 내담자의 핵심적 이슈와 갈등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형태의 치료에서든 그 큰 줄기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도록 돕는다(장재홍, 1999). 또한, 사례개념화는 상담성과와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서경희, 김지현, 2008; 장재홍, 1999).

Hillerbrand(1989)는 전문상담자는 내담자를 개념화할 수 있고, 실제적 정보를 통합하고, 대인 관계적 과정을 인식하며 인지적 이해 기술과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인지적 특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Lichtenberg(1997)와 Goodyear(1997)도 상담자의 전문성은 상담자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지혜의 인지적 요인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지혜 개념에는 ‘삶에 대한 전문적 지식’(Baltes & Staudinger, 2000), ‘합리적 판단’(Sternberg, 2003), ‘문제해결 능력’(Arlin, 1990), ‘유능성과 지식’(Yang, 2000),

‘안목과 통찰력’(이수림, 2008), ‘조망수용’(이수림, 2008; Ardel, 2003)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개념화는 상담자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담과정이며 상담자 지혜가 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역전이’는 상담자의 미해결된 심리적 문제가 내담자에 의해 촉발되어 상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최가희, 2002). 상담자가 자신의 역전이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상담의 효과에 상당히 중요하다(김지은, 2005). 상담자 변인과 역전이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상담자의 불안은 역전이에 영향을 미치며(신교숙, 2000; Hayes & Gelso, 1991), 상담자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역전이가 감소했고(양경연, 2005), 상담자의 자기자각은 역전이를 방지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yes, 1995). Van Wagoner, Gelso, Hayes와 Diemer(1991)는 자기통찰, 자기통합, 불안관리, 공감능력, 개념화기술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이 역전이를 방지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과 상담성고에 영향을 미쳤다(최가희, 2002; 황인호, 2004; Hays & Gelso, 2001).

Ardelt(2003)의 지혜 개념은 자기자각, 자기통합, 성찰 등 인지적, 반성적 측면과 정서조절과 같은 정서적 차원을 포함한다. 또한, ‘정서인식과 조절’(이수림, 2008; Webster, 2003), ‘자아의 내적 통합과 균형’(이수림, 2008)은 자신 내면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고, 내적으로 통합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혜의 요소는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 능력과 관련되며 역전이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상담에서 관계형성은 상담성고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요소이다. 각 이론적 접근에서는

치료자 태도를 강조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소 다른 견해를 갖지만, 좋은 관계형성과 상담성파를 위해서 상담자들이 보다 수용적이며,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권희경, 1999). Luborsky 등(1985)은 효과적 치료의 주요 요인은 치료자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형성 능력이라고 하였다.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담자의 태도란 공감적 태도, 온정적 태도, 수용적 태도, 존중적 태도 등을 일컬을 수 있다. Rogers(1959, 박성희 2004, 재인용)는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준거 틀을 정확하게, 그것의 감정적 요소와 거기에 관련된 의미를 마치(as if)라는 사실을 망각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관계형성 능력이 뛰어난 상담자들의 특징은 내담자에 민감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내담자의 복지와 자신의 개인적, 전문적 성장에 전념하는 것을 발견하였다(Albert, 1997; Goldberg, 1992). 심홍섭(1998)은 슈퍼바이저 면접을 통해 숙련 상담자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하였고, 인간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신감, 수용성, 솔직성, 인내심 등의 영역을 인간적·윤리적 태도라 정의하였다. 즉, 상담자의 인간적·윤리적 태도는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Vivino와 Thompson, Hill, Ladany(2009)의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진정으로 공감하고 인간적인 연민을 갖고 있는 것이 내담자와의 좋은 관계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Wynn과 Wynn(2006)의 연구에서도 공감적 작업동맹과 상담성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상담자의 공감 및 존중적 태도가 내담자의 상담성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권희경,

1999; 김연희, 2007; 한현주, 2003; Bohart & Greenberg, 1997).

많은 지혜 이론가들의 지혜 개념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타심이 포함되어 있다(이수림, 2008; Ardel, 2003; Clayton & Birren, 1980; Kramer, 2000; Yang, 2000). 이러한 지혜 개념들에서 볼 때, 지혜로운 상담자는 내담자와 관계형성을 더 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상담과정에서의 공감, 인간적, 윤리적 태도로 나타나 내담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Dinger와 Strack, Leichsenring, Wilmers, Schauenburg(2008)는 상담에 미치는 상담자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상담자는 작업동맹 변화의 33%이상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상담자의 친화적, 공감적, 긍정적 태도가 작업동맹을 강화시키는 반면, 상담자의 무관심하고 거리감을 두는 태도, 상담에 덜 몰입하거나, 감정이 결여된 말을 하거나, 단지 정보와 조언만을 제공할 때 작업동맹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Harold와 Henrik, Amy, Elisabeth, 2005; Hersoug과 Høglend, Havik, von der Lippe, Monsen, 2009)

또한 작업동맹이 상담성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Baldwin, Wampold, & Imel, 2007; Bordin, 1979; Gelso & Carter, 1985, 1994; Horvath & Greenberg, 1989; Horvath & Symonds, 1991; Mallinckrodt, 1993; Martin, Garske, & Davis, 2000). 따라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 관계형성이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성파를 상담자평가, 회기평가, 최종평가의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

여 상담자 지혜와 상담과정 변인들, 상담성과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Fuller와 Hill (1985)은 상담성과를 최종적 성과와 즉시적 성과인 회기평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들은 최종적 성과는 상담의 효과 또는 효율성을 밝히는 것이며, 즉시적 성과는 상담과정 회기 내 변인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종적 성과 측정에는 상담만족도(황인호, 2004)나 증상이나 목표의 달성도 측정이 있으며, 즉시적 성과는 회기성과 측정(이상희, 1993; 장재홍, 1999)이 있다. 또한, 상담자에 대한 전문성, 신뢰성, 호감성 평가가 상담관계 및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김진성, 2006; Fuller & Hill, 1985; Kokotovic & Tracey, 1987).

지금까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내담자의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각 변인들이 어떤 경로로 인해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상담자의 지혜는 상담내의 어떤

경로를 통해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두 개의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인은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 관계형성이며, 내담자의 작업동맹, 상담성과이었다.

경쟁모형 1은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 장면에서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 관계형성에 각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그림 1 참조). 경쟁모형 2는 상담자의 지혜가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관계형성, 작업동맹,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모형이다(그림 2 참조).

경쟁모형 2에서는 지혜가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을 통해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이 경쟁모형 1과 다른 부분이다.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지적이며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평가가 정서와 행동에 앞선다(Lazarus, 1991).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평가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행동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된 바 있다(Fauth & Hayes, 2006). 따라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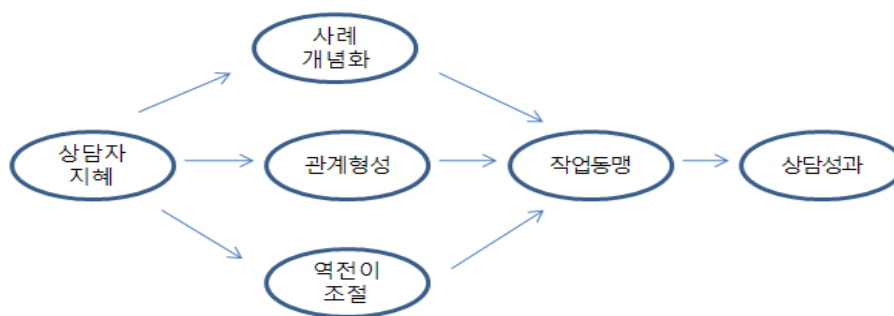


그림 1. 지혜가 사례개념화, 관계형성, 역전이 조절을 매개로 작업동맹,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경쟁모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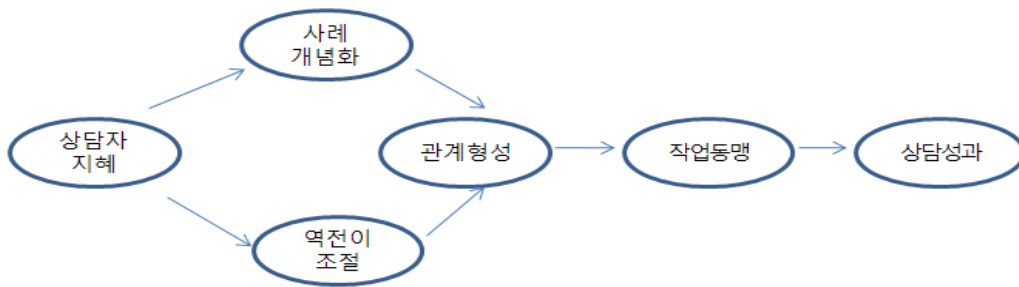


그림 2. 지혜가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을 매개로 관계형성, 작업동맹, 상담성파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경쟁모형2)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역전이 조절은 상담자가 자신의 불안을 관리하고, 내담자로 향하는 부정적인 역전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전이조절도 사례개념화와 마찬가지로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이 관계형성을 매개로 작업동맹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 상담자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는 총 189명으로, 남자가 24명(12.7%), 여자가 165명(87.3%)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3세에서 54세의 범위였다(평균 35.12세, 표준편차 6.74). 결혼사항은 미혼이 89명(47.1%), 기혼이 100명(52.9%)이었다. 상담 경력은 평균 5.43년(표준편차 4.65)이었고, 1급 상담심리사수준의 상담자는 64명(33.9%)이었고, 2급 수준은 86명(45.5%), 기타 사설 자격증 보유자는 6명(3.2%), 무자격자는 39명(20.7%)이

었다. 1급 자격수준에 해당자는 상담관련자격증(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전문가) 1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최소 상담경력 5년 이상인 상담자들이었다. 2급 자격수준의 해당자는 상담관련자격증 2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상담경력이 1년 반 이상인 상담자였다.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3급 청소년상담사, 사설기관 발행 자격증 소지자였으며, 무자격자는 자격증이 없는 상담자였다. 근무기관은 대학상담센터가 115명(60.8%)이고, 공공청소년상담기관이 41명(21.7%), 시민단체 등 기타가 12명(6.3%)이었다. 학력은 석사이하 30명(15.8%), 석사졸업이 84명(44.4%), 박사과정이 23명(12.2%), 박사수료이상이 51명(26.9%)이었다.

#### 내담자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 학생생활상담소, 공공 청소년상담기관, 일반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 이상이며 4회기 이상 진행된 내담자들 중에서 연구에 동의한 189명의 내담자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내담자의 연령분포는 만 14세에서 55세의 범위였으며(평균 23.67세, 표준편차 6.94), 성별은 남자가 56명(29.6%), 여자가 133명(70.4%)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17명(9.0%), 미혼이 171명

(90.5%), 기타 1명(0.5%) 이었다. 내담자들의 학력은 고등학생이 33명(17.5%), 대학생이 108명(57.1%), 대학원생이 19명(10.0%), 고졸이 6명(3.2%), 대졸이 17명(9.0%), 대학원졸이 4명(2.1%), 기타가 2명(1.1%)이었다. 또한 설문지를 실시할 당시 회기는 4회기에서 123회기의 범위였다(평균 18.04회, 표준편차 18.76). 조사할 당시의 상담단계는 초기 35명(18.5%), 중기 89명(47.1%), 후기 62명(32.8%)이었다. 또한, 내담자의 문제영역은 복수응답으로 전체 391건이었으며, 대인관계영역 92건(23.53%), 가족영역이 66건(16.88%), 진로 및 학업영역이 54건(13.81%), 정서문제 영역이 66건(16.88%), 성격문제 영역이 47건(12.02%), 행동 및 습관문제 영역이 30건(7.67%), 적응문제 영역이 33건(8.44%), 기타가 3건(0.77%)이었다.

#### 측정도구

##### 상담자용 도구

**한국판 지혜 척도.** 이수립(2008)이 개발한 지혜 척도로 36문항이며 리커트(Likert)형 5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지혜 척도는 36문항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요인구조는 5요인으로 하위요인명과 문항 수는 ‘안목과 통찰’ 10문항, ‘조망수용’ 5문항, ‘정서조절’ 8문항, ‘경험의 통합’ 7문항, ‘관심과 포용’ 6문항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요인 구조의 적합도는 TLI .90, CFI .91, RMSEA .04(90% 신뢰도 이하 한계 .03, 90%신뢰도 이상 한계 .04)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alpha$ 는 .88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alpha$ 는 안목과 통찰 .66, 정서조절 .69, 조망수용 .68, 경험의 통합 .80, 관심과 포용 .62

이었다.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심홍섭(1998)의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 중 사례이해(11문항), 상담계획(11문항), 알아차리기(9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9문항) 요인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응답방식은 리커트(Likert)형 6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당시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  $\alpha$ 는 사례이해 .88, 상담계획 .88, 알아차리기 .85, 인간적·윤리적 태도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  $\alpha$ 는 사례이해 .88, 상담계획 .90, 알아차리기 .89, 인간적·윤리적 태도 .87이었다.

**역전이 행동 척도.** 역전이 행동 척도는 Friedman과 Gelso(2000)가 개발하고 김지은과 조성호(2006)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전체 17문항이며 무관심/배척, 과잉지지, 훈계/통제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커트(Likert)형 5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관심/배척과 훈계/통제 요인의 11문항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  $\alpha$ 는 훈계/통제가 .71, 무관심/배척이 .77이었다.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는 Van Wagoner 등(1991)이 개발하고, 장세미(1999)가 번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지은(2005)이 요인 분석한 ‘불안관리’ 요인 4문항을 측정하였다. 불안관리는 상담할 때 불안하지 않고, 자신감을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리커트(Likert)형 5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불안관리의 신뢰도계수  $\alpha$ 는 .75였다.



**공감척도.** 공감척도는 Barrett-Lennard(1962)의 관계검사(BLRT: 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를 정방자(1986)가 변안한 상담관계질문지 중 공감요인에 해당하는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3에서 +3까지 6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alpha$ 는 .74이었다.

**내담자용 도구**

**작업동맹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작업동맹을 측정하기 위해, Bordin(1979)의 이론을 바탕으로 Horvath와 Greenberg(1989)가 개발한 질문지의 단축형 질문지(Tracey & Kokotovic, 1989)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목표합의, 과제동의, 유대의 세 요인에 각각 4문항으로 총 12문항의 7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혜영(1995)이 변안하여 내담자용으로 수정한 질문지 중 단축형에 맞는 12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계수  $\alpha$ 는 .87이었다.

**상담회기영향 척도.** 상담회기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Elliott와 Wexler(1994)가 개발한 질문지를 장재홍(1999)이 수정하여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과제영향, 관계영향, 방해영향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Likert)형 5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과제영향은 내담자가 현재 문제에서 어떤 진전을 경험하는 것이며, 관계영향은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고, 방해영향은 상담이 방해받는 느낌으로 부정적 경험 등을 포함한다. 장재홍(1999)의 연구에서 각각의 신뢰도 계수  $\alpha$ 는 과제영향이 .83, 관계영향이 .88, 방해영향이 .81로 나타났다. 전체 총 16문항이며 본 연구에서는

장재홍(1999)의 요인분석 결과,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은 1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alpha$ 는 과제영향이 .86, 관계영향이 .86, 방해영향이 .65로 나타났다.

**상담회기평가질문지.** 상담회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Stiles(1989)의 상담회기평가질문지(SEQ Form4)를 이상희(1993)가 변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깊이와 순조로움 두 개 요인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커트(Likert)형 5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alpha$ 는 깊이가 .79, 순조로움이 .80이었다.

**상담만족도 척도.** 상담자용 척도와 같은 척도로서 황인호(2004)가 내담자용으로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리커트(Likert)형 7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alpha$ 는 .95였다.

**상담자 평가 질문지.**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고자 상담자 평가 질문지(CRF-S)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상담자의 전문성, 호감성, 신뢰성의 3차원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Barak와 LaCrosse(1975)가 개발한 질문지를 Corrigan과 Schmidt(1983)가 단축형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타당화가 되었다(Tracey, Glidden, & Kokotovic, 1988). 본 연구에서는 오경희(1986)가 변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각 하위요인별 4문항으로 총 12문항이 7점 척도로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alpha$ 는 .93이었다.

## 절차

본 연구의 질문지는 대학상담기관, 청소년 상담기관, 사설 상담기관 등에 개별적인 협조를 통해 배부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는 상담자질문지를 작성하였는데, 상담자질문지에는 상담의 일반적 사항 질문지, 역전이 행동 척도, 공감적 이해 척도,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 척도, 지혜 척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내담자는 자기보고 질문지의 응답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이상으로 한정하였고, 상담회기는 4회기 이상 상담이 진행된 내담자들로 한정하였다. 상담자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내담자 중 1명에게 연구 협조를 구하고 상담회기가 끝난 이후에 설문지를 작성하여 상담자가 볼 수 없도록 내담자가 직접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내담자 질문지에는 작업동맹 척도, 상담회기평가 질문지, 상담회기 영향 척도, 상담만족도 질문지, 상담자 평가 척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내담자 쌍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자-내담자 1쌍을 1피험자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의 어떤 경로를 통해 상담성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MOS 7.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경로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결 과

지혜가 상담과정과 상담성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의 타당성 평가과정에서 2단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전체 잠재변인들로 구성된 이론모형을 검증하는 것이다.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에는 잠재변인이 지혜,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 관계형성, 작업동맹, 상담성과 6개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지혜,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 관계형성은 상담자가 보고한 자료이며, 작업동맹과 상담성과는 내담자가 보고한 자료이다.

이때 지혜의 측정변인은 안목과 통찰, 조망수용, 정서조절, 경험의 통합, 관심과 포용으로 지혜 척도의 하위척도이다. 사례개념화의 측정변인은 사례이해, 상담계획, 알아차리기로 하였으며, 이는 사례개념화의 정의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역전이 조절의 측정변인은 무관심/배척, 통제/훈계, 불안관리로 하였으며, 역전이 행동 척도와 역전이 관리능력 척도의 하위요인에서 선정하였다. 관계형성의 측정변인은 인간적·윤리적 태도와 공감으로 하였으며, 이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관련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작업동맹의 측정변인들은 과제, 유대, 목표로써 작업동맹 척도의 하위척도이다. 상담성과의 측정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혜	안목과통찰	3.87	0.31	-																			
	정서조절	3.53	0.43	.39**	-																		
	조감수용	3.69	0.49	.61**	.50**	-																	
	경험의통합	3.86	0.50	.51**	.41**	.42**	-																
	관심과포용	3.47	0.47	.32**	.44**	.46**	.43**	-															
사회개념화	사제이해	4.60	0.53	.47**	.34**	.47**	.40**	.21**	-														
	상담계획	4.16	0.60	.40**	.33**	.51**	.32**	.25**	.81**	-													
	양아치러리기	4.46	0.57	.45**	.40**	.51**	.34**	.25**	.85**	.77**	-												
역언어조절	불안관리	3.73	0.71	.30**	.34**	.30**	.22**	.25**	.49**	.46**	.49**	-											
	통제문제	2.11	0.55	-.30**	-.13	-.21**	-.19**	-.15**	-.38**	-.39**	-.38**	-.20**	-										
	무관심/배척	1.75	0.48	-.48**	-.31**	-.41**	-.25**	-.26**	-.53**	-.55**	-.51**	-.45**	.55**	-									
관계형성	인간적응리력태도	4.80	0.57	.41**	.34**	.49**	.35**	.27**	.79**	.69**	.77**	.54**	-.41**	-.62**	-								
	공감	4.07	0.39	.40**	.38**	.42**	.24**	.26**	.72**	.66**	.73**	.51**	-.47**	-.64**	.70**	-							
	과제(내)	5.58	0.86	.01	.04	.03	-.02	-.04	.23**	.19**	.12	.10	-.22**	-.16**	.23**	.14**	-						
작업동행(내)	유대(내)	5.60	0.92	.07	.03	.02	.04	-.01	.18**	.13	.12	.11	-.29**	-.15**	.24**	.18**	.73**	-					
	목표(내)	5.63	0.99	.06	.07	.05	.01	-.04	.28**	.20**	.16**	.17**	-.20**	-.19**	.24**	.21**	.73**	.61**	-				
	상담자평가(내)	5.82	0.76	.07	.06	.03	.04	-.02	.15**	.15**	.17**	.19**	-.22**	-.12**	.20**	.16**	.59**	.73**	.48**	-			
상담성파(내)	회기명함(내)	3.95	0.56	.22**	.05	.08	.06	.01	.23**	.18**	.19**	.13	-.36**	-.22**	.26**	.18**	.67**	.69**	.58**	.61**	-		
	회기성파(내)	5.25	0.77	.11	.04	.02	.03	-.03	.11	.09	.10	.12	-.25**	-.15**	.20**	.10	.59**	.65**	.49**	.61**	.68**	-	
	상담만족도(내)	5.74	1.04	.14	.04	.05	.08	-.03	.16**	.07	.09	.08	-.21**	-.18**	.21**	.12	.70**	.76**	.60**	.67**	.75**	.64**	-

n=185-189, \* p < .05, \*\* p < .01  
(내)는 내담자가 보고한 것이며, 그 외 변인들은 상담자가 보고한 것임.

변인은 상담만족도, 회기성과, 회기영향, 상담자평가를 선정하였으며, 상담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였다.

지혜 측정변인들은 상담자가 보고한 무관심/배척, 통제/훈계, 불안관리, 공감,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p < .05$ ). 그러나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상담자의 안목과 통찰 요인이 내담자의 회기영향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p < .05$ ), 다른 지혜요인들은 내담자가 보고한 상담성과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상담자만족도와 상담자평가는 모든 상담과정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p < .05$ ). 내담자의 성과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낸 변인들은 무관심/배척, 통제/훈계, 공감, 인간적·윤리적 태도였다.

####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우선, 각 측정변인들의 정규분포를 확인해 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에서 왜도와 첨도 모두 2를 넘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측정변인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과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각각 잠재변인별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거한 후 전체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잠재변인별로 타당성

검증을 생략하고, 잠재변인 전체의 측정모형 타당성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연구자가 보다 엄격하게 항목들을 선별하고자 하거나, 전체 측정변인의 수가 많을 경우에 사용한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방법은 연구자가 많은 수의 항목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전체 측정변수들의 수가 적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7).

본 연구에서는 각 잠재변인별 측정변수의 수가 2-5개로, 개별 잠재변인별로 검증이 되지 않는 잠재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잠재요인의 측정변수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참조).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chi^2=320.82$  ( $df=156$ ,  $p=.000$ )로 부적합하게 나타났으나,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합도 지수에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가 있으며,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GFI와 RMSEA를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TLI와 CFI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GFI는 엄격한 기준으로는 .95를 사용하며(Hu & Bentler, 1998, 1999),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GFI .86, TLI .92, CFI .93으로 GFI는 .95보다 낮았으나 다른 지수들은 .90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는 .08(90% 신뢰도 이하 한계 .06, 90%신뢰도 이상 한계 .09)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보고한 측정변인과 내담자가 보고한 측정변인이 모형에 포함되어 있어, 두 관점의 차이가 모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상담자 평정과 내담자 평정에 대한 방법요인(method factor)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chi^2=448.12$  ( $df=1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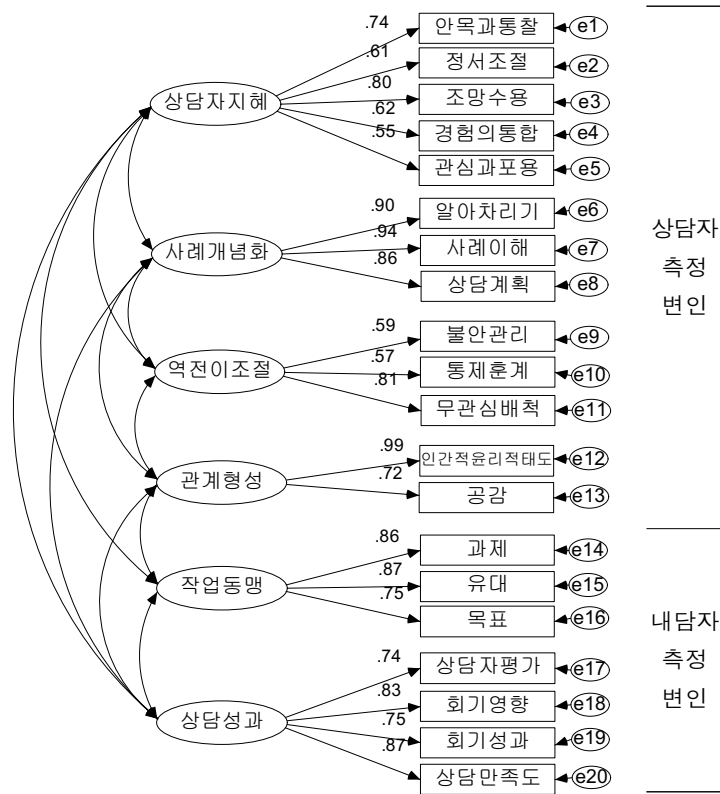


그림 3. 본 연구에 사용된 잠재변인들의 측정모형

p=.000)로 나타나 방법요인을 가정하지 않은 본 측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측정모형의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55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혜가 매개변인을 통하여 상담성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

하여, 경쟁모형 1, 2를 비교하였다.

경쟁모형 1에서는 상담자의 지혜가 각각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를 매개로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영향을 주고, 작업동맹이 상담성파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선정하였다. 경쟁모형 2에서는 지혜가 각각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에 영향을 주며 이를 매개로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형성에서 작업동맹 및 상담성파로 가는 경로를 선정하였다.

경쟁모형 1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각 그림에서 직선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다. 상담자의 지혜가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 관계형성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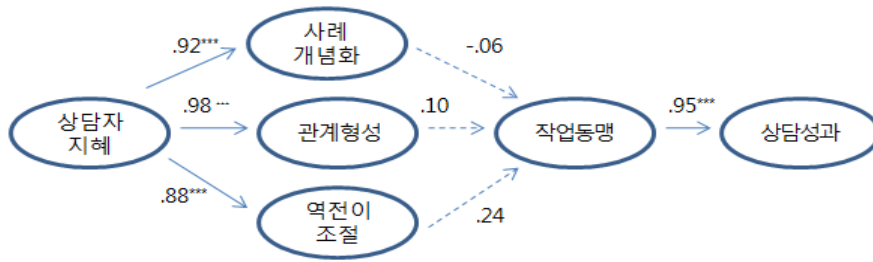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 1의 결과

\*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의미하며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계수를 의미함

였다( $p < .001$ ). 관계형성에서 작업동맹으로 가는 경로, 작업동맹에서 상담성과로 가는 경로들이 모두 유의하였다( $p < .001$ ). 그러나 사례 개념화, 역전이 조절에서 작업동맹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쟁모형 2를 검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경쟁모형 2에서, 상담자의 지혜가 사례 개념화, 역전이 조절로 가는 경로계수, 사례 개념화, 역전이 조절에서 관계형성으로 가는 경로, 관계형성에서 작업동맹으로 가는 경로, 작업

동맹에서 상담성과로 가는 경로계수들이 모두 유의하였다( $p < .001$ ). 경쟁모형 1, 2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다. 경쟁모형 1의 경우, GFI .81, TLI .88, CFI .89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9(90%이하 한계:.08, 90%이상 한계:.10)로 나타나 보통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경쟁모형 2의 경우, GFI .86, TLI .93, CFI .94, RMSEA는 .07(90%이하 한계:.06, 90%이상 한계:.08)로 나타나 경쟁모형 1의 적합도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경쟁모형의 비교는 경쟁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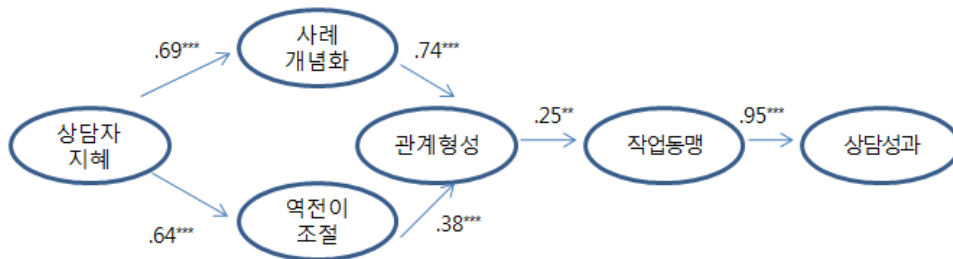


그림 5. 경쟁모형 2의 결과

표 2. 경쟁모형 1, 2 및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적합도지수	$\chi^2$	df	p	GFI	TLI	CFI	RMSEA
경쟁모형1	414.40	164	.00	.81	.88	.89	.09
경쟁모형2	309.22	165	.00	.86	.93	.94	.07
수정모형	276.28	164	.00	.87	.95	.95	.06

2가 더 나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경쟁모형 2를 선택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는 수정지수를 산출하는데, 수정지수는 현재의 분석 모형에서 어떤 항목 간의 관계를 추정할 경우 적합도가 얼마나 향상할 것인가를  $\chi^2$ 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이 경우, 수정지수의 기준치를 3.84를 사용하거나 좀 더 보수적으로는 10.0을 사용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7). 경쟁모형 2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에서는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 간의 공분산을 설정하면,  $\chi^2$ 가 28.99 줄어든다고 제안하였다. 수정지수에서 제안한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이론적 논리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데, 본 모형에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은 개념상으로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며 실제적으로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으므로, 공분산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경쟁모형 2에 공분산을 설정한 수정모형을 검증하였다(그림 6 참조). 수정모형은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 간의 공분산이 설정되었고, 상관계수가 .57로 나타났다. 공분산의 설정으로 전체적으로 경로계수가 변화되었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GFI .87, TLI .95, CFI .95, RMSEA는 .06(90%이하 한계:.05, 90%이상 한계:.07)으로 나타나 경

쟁모형 2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었다.

최종모형에 잠재변인 간 나타나지 않는 경로들이 있어서, 추가 경로를 설정하여  $\chi^2$ 적합도가 향상되는 모형이 있는지 대안모형을 찾아보았다. 모형구조가 같으면서 경로를 추가하거나 제거한 모형을 중첩모형(Nested Model)이라고 하며, 이 경우  $\chi^2$ 값을 비교하는 차이검증을 실시한다. 즉, 자유도가 1차이가 날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chi^2$ 의 변화 수치가 3.84이므로, 차이가 3.84보다 작으면 초기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해석한다(이학식, 임지훈, 2007). 최종모형에 경로를 추가하였을 경우에 본 연구에서 찾아본 대안 모형들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 경로를 추가하였을 때, 초기모형보다 우수하게 나타난 모형이 없었으며 이는 초기모형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지금까지 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하면,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모형은 수정모형이다(그림 6 참조). 최종모형에서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은 상담자의 지혜와 관계형성을 매개하였다.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Sobel test 검증 결과, 사례개념화( $z=2.99, p<.01$ )와 역전이 조절( $z=2.67, p<.01$ )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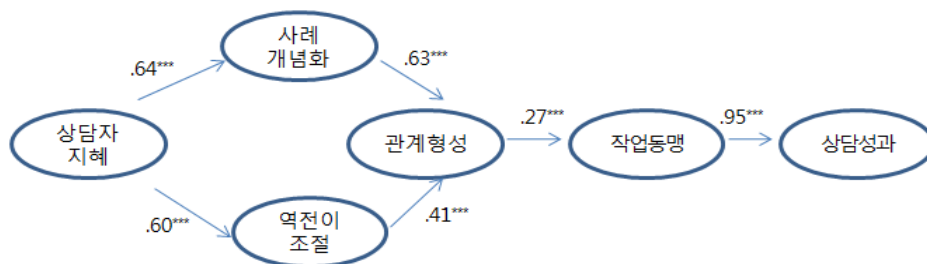


그림 6. 최종모형: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 간 공분산을 설정한 수정모형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의 매개변인들을 통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상담자 지혜가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 관계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내담자의 작업동맹을 매개로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쟁모형 1과 상담자의 지혜가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이 변인들이 관계형성, 작업동맹을 매개로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쟁모형 2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경쟁모형 2가 더 적합한 모델로 결정되었다. 또한, 수정지수의 제안에 따라서 경쟁모형 2에 역전이 조절과 사례개념화 간의 공분산을 설정한 수정모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즉, 상담자의 지혜는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을 매개로 하여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는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영향을 주어 상담성과를 높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주요결과와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인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지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함의를 준다. 상담자의 지혜는 상담과정에서 사례를 다루는 사례개념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사례개념화는 상담자의 전문성(expertise)과 관련된 영역이다(Ericsson & Lehmann, 1996; Goodyear, 1997). Lichtenberg(1997)는 상담에서의 전문성(expertise)은 임상적 판단과 관련되며, 이

는 상담자의 인지적 도식, 판단을 형성하는 인지과정, 상담자에 의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생산물로 인해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즉, 지혜는 조망수용, 안목과 통찰과 같은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며, 이는 상담자의 사례개념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전이 조절은 역전이 감정에 대해 상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조절하고, 통합하고, 타인에게 올바른 정서표현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사례개념화가 사례를 다루는 전문성에 대한 것이라면, 역전이 조절은 상담자 자신의 내적 통합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지혜의 개념에는 정서조절, 자아통합이나 자기자각, 성찰과 반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상담과정 내에서 상담자의 역전이 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자의 지혜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을 잘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지혜는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을 매개로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례개념화와 같은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담자의 역전이 조절이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자신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갖는 주관적 인상을 형성한다(최가희, 2002). 또한,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상담자의 역전이에 영향을 미쳐서 내담자에게 보다 거리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Fauth & Hayes, 2006). 이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갖는 주관적 인상이나 이해의 정도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형성을 하는데 촉진적 또는 방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결과는 상담에서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을 잘 맺는데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이 상담자에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관계형성은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상담성파에 영향을 미쳤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 및 성과 측정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낸 변인들은 상담자의 태도 및 행동에 해당하는 인간적·윤리적 태도와 공감, 무관심/배척, 통제/훈계 이었다. 이는 내담자가 상담자 및 상담과정을 지각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보다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사례개념화와 역전이 조절이 직접적으로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보다, 관계형성을 통해서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담자는 상담자의 관계형성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으로 내담자는 상담관계를 통해 상담자가 나타내는 긍정적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구상하고 있는 전문적인 상담계획도 중요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이를 통해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공감, 온정적 수용적 태도, 친화적 행동, 따뜻함 등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이 작업동맹에 긍정적 영향을 준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권희경, 1999; Hersoug, 2004; Hersoug et al, 2001; Hersoug et al, 2002; Sandell et al, 2007). 또한, Kim과 Liang, Li(2003)는 상담자의 미소가 내담자의 상담에 초점을 두도록 자극하며 회

기성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즉, 상담은 관계에 기초한 전문적 작업이다. 상담자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하더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의 관계형성에서 내담자의 작업동맹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27로 높지 않았으며 내담자의 작업동맹에서 상담성파로 가는 경로계수는 .95로 매우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측정 결과가 잘 일치하지 않았듯이,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점의 차이와 관련된다. 즉, 상담자가 보고한 측정변인들 간, 내담자가 보고한 측정변인들 간에는 다소 높은 상관을 나타낸 반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보고한 상담과정 및 성과변인들 간에는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Hilliard et al, 2000; Horvath & Symonds, 1991; Mallinckrodt & Nelson, 1991). Horvath와 Symonds(1991)는 내담자의 작업동맹 평점이 성과를 더 잘 예언한다고 하였고, 상담자는 상담에 대해 과도한 낙관성을 갖고 있거나, 내담자의 순응적 행동을 진정한 협력으로 오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내담자가 상담성파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담 외적 변인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담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 외적인 많은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변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내담자 설문은 상담자가 설문에 동의를 얻은 내담자에게 내담자 설문을 수거하는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내담자 설문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협조적인 내담자에게 설문

을 구하게 되고, 상담자에게 순응성이 높은 내담자들의 자료가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작업동맹의 평균 점수는 7점 리커트 척도에서 5점 이상으로 내담자 선정 시 상담관계가 좋다고 생각되는 내담자들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내담자 선정 시 표집이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상담자의 지혜 및 상담관련 변인들을 측정할 양적 연구로써, 상담자 지혜의 어떤 측면이 상담과정 중에 녹아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과정에 대한 상호작용 경험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과정에서의 상담자 역할에 대해 경험적 측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써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즉, 상담자의 지혜는 사례개념화, 역전이 조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관계형성, 작업동맹, 상담성공에 영향을 미쳤다. 상담자의 지혜가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이(Johnson, 1995; Kramer, 2000) 상담 장면에서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상담자의 지혜가 내담자의 상담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강혜영 (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의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희경 (1999). 상담자 태도 및 저항에 대한 개입이 저항 감소와 상담 지속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연희 (2007). 놀이치료자의 성인애착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지은 (2005). 부정적 역전이의 발생과정: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분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지은, 조성호 (2006).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17-136.

김진성 (2006). 상담자의 긍정적 자기평가와 상담효과 평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현정 (2003).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기위로능력 및 역전이관리능력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노안영 (2001). 상담심리학에 있어 지혜의 역할. 심리과학, 10(1), 133-152.

박성희 (2004). 공감학. 서울: 학지사.

서경희, 김지현(2008).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57-673.

손은정, 이혜성 (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신교숙 (2000). 놀이치료자의 경력, 훈련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양경연 (2005).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및 역전이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

- 위 논문.
- 오경희 (1986). 초기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 전달이 내담자의 의도지각 및 상담의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충광 (2007). 내담자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 효과.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혜진 (2006). 초심 상담자의 상위 인지 자각, 역전이 관리 능력, 상담 지속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희 (1993). 상담회기 평가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수림 (2008)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과정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수림, 양미진 (2009). 질적 분석을 통한 상담과정 중 내담자 지혜 발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791-813.
- 이수림, 조성호 (2009). 상담자 발달수와 지혜에 관한 연구: 상담자 발달수준에 따른 상담자의 지혜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69-91.
- 이윤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이학식, 임지훈 (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6.0. 법문사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태불안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재홍 (1999). 계획공식화 방법에 의한 심리치료 과정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재홍, 권희경 (2002).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파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487-509.
- 전재영 (2001). 상담자의 개념화 발달수준과 사례개념화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방자 (1986). 정신역동적 상담과정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변화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가희 (2002).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 능력과 내담자에 대한 인상형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현주 (2003). 놀이치료자의 공감능력과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자와의 정서적 유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수현 (2001). 상담 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인호 (2004).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lbert, G. (1997).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psychotherapists? The experts speak. *Journal of Practical Psychology and Behavioral Health*, 3, 36 - 44.
- Ardelt, M. (2000). Antecedents and effects of wisdom in old ag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aging well. *Research on Aging*, 22(4), 360-336.
- Ardelt, M. (2003). Development and empirical assessment of a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Research on Aging*, 25, 275-324.
- Arlin, P. K. (1990). Wisdom: The art of problem

- finding.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230-243). Cambridge,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dwin, S. A., Wampold, B. E., & Imel, Z. E. (2007). Untangling the alliance-outcome correlation: Explor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rapist and patient variability in the alli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6), 842-852.
- Baltes, P. B., & Staudinger, U. M. (2000). Wisdom: A metaheuristic (pragmatic) to orchestrate mind and virtue toward excellence. *American Psychologist*, 55(1), 122-136.
- Barak, A., & LaCrosse, M. B. (1975). Multidimensional perception of counselor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471-476.
- Barrett-Lennard, G. T. (1962). Dimensions of therapist response as causal factors in therapeutic change. *Psychological Monographs*, 76, 1-33.
- Bohart, A. C., & Greenberg, L. S. (1997). *Empathy reconsider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 252 - 260.
- Brammer, R. (1997). Case conceptualization strategi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sts' experience levels, academic training, and mode of clinical inquir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4), 333-349.
- Clayton, V., & Birren, J. E. (1980). The development of wisdom across the lifespan: A reexamination of an ancient topic. In P. B. Baltes & O. G.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3* (pp.101-135). New York: Academic Press.
- Corrigan, J. D., & Schmidt, L. D.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visions in the counselor rating for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64-75.
- Cummings, A. L., Hallberg, E. T., Martin, J., Slemon, A., & Hiebert, B. (1990). Implications of counselor conceptualiz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0, 120-134.
- Dinger, U., Strack, M., Leichsenring, F., Wilmers, F., & Schauenburg, H. (2008). Therapist effects on outcome and alliance in inpatient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4(3), 344-354.
- Ericsson, K. A. & Lehmann, A. C. (1996). Expert and exceptional performance: Evidence of maximal adaptation to task constrain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7, 273-305.
- Elliott, R., & Wexler, M. M. (1994). Measuring the impact of sessions in process-experiential therapy of depression: The session impacts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66-174.
- Fauth, J., & Hayes, J. A. (2006). Counselors' Stress Appraisals as Predictors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With Male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4), 430-439.
- Friedman, S., & Gelso, C. J. (2000).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221-1235.
- Fuller, F., & Hill, C. E. (1985). Counselor and helpee perceptions of counselor intentions in relation to outcome in a single counseling s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29-338.
- Gelso, C. J., & Carter, J. A. (1985). The relationship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mponent, consequences, and theoretical antece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2), 155-243.
- Goldberg, C. (1992). *The seasoned psychotherapist*. New York: Norton.
- Goodyear, R. K. (1997). Psychological expertise and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 An exploration of issu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3), 251-265.
- Hayes, J. A., & Gelso, C. J. (1991). Effects of therapist-trainees' anxiety and empathy on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 284-290.
- Hanna, F. J., & Ottens, A. J. (1995). The role of wisdom in psychotherapy.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5(3), 195-219.
- Hayes, J. A. (1995). Countertransference in group psychotherapy: Waking a sleeping dog.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45, 521-535.
- Harold, S., Henrik, L., Amy, S., Elisabeth, T. (2005). Building an alliance: Early therapy process and the client-therapist connection. *Psychotherapy Research*, 15(1&2), 103-116.
- Hersoug, A. G. (2004). Assessment of Therapists' and Patients' Personality: Relationship to Therapeutic Technique and Outcome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3(3), 191-200.
- Hersoug, A. G., Bøglwald, K. P., & Høglend, P. (2003). Are patient and therapist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use of defence interpretation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0, 209-219.
- Hersoug, A. G., Høglend, P., Monsen, J. T., & Havik, O. E. (2001). Quality of working alliance in psychotherapy: Therapist variables and patient/therapist similarity as predictors. *Journal of Psychotherapy Practice and Research*, 10, 205-216.
- Hersoug, A. G., Høglend, P., Havik, O. E., von der Lippe, A., Monsen, J. T. (2009). Therapist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quality of alliance in long-term psychotherap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6(2), 100-110.
- Hersoug, A. G., Monsen, J. T., Havik, O. E., & Høglend, P. (2002). Quality of early working alliance in psychotherapy: Diagnoses, relationships, and intrapsychic variables as predictor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1, 18-27.
- Hillerbrand, E. (1989).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expert and novices: Implications for group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293 - 296.
- Hilliard, R. B., Henry, W. O., & Strupp, H. H. (2000). An interpersonal model of psychotherapy: Linking patient and therapist developmental history, therapeutic process, and types of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 Clinical Psychology*, 68, 125-133
- Holliday, S. G., & Chandler, M. J. (1986). *Wisdom: Explorations in adult competence*. Basel: Karger.
- Holloway, E. L., & Wolleat, P. L. (1980). Relationship of counselor conceptual level of clinical hypothesis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39 - 545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2.
- Horvath, A.,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9-149.
-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 424-453.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EquationModeling*, 6, 1-55.
- Johnson, T. F. (1995). Aging well in contemporary socie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9, 120-130.
- Karlin, R. A. (2002). Advice and consent: Demand characteristics, ritual, and the transmission of practical wisdom in the clinical context. *Prevention & Treatment*, 5(1), 44-52
- Kim, B. S. K., Liang, C. T. H., Li, A. C. (2003). Counselor ethnicity, counselor nonverbal behavior, and session outcome with Asian American clients: Initial finding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2), 202-207.
- Kinnier, R. T., Tribbensee, N. E., Rose, C. A., Vaughan, S. M. (2001). In the final analysis: More wisdom from people who have faced death.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2), 171-177.
- Kokotovic, A. M., & Tracey, T. J. (1987). Premature termination at a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80-82.
- Kramer, D. A. (2000). Wisdom as a classical source of human strength: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inqui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83-101.
- Kunzmann, U., & Baltes, P. B. (2003). Wisdom-related knowledge: Affective, motiv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04-1119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chtenberg, J. W. (1997). Expertise in counseling psychology: A concept in search of suppor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3), 221-238.
- Loganbill, C., & Stoltenberg, C. (1983). The case conceptualization format: A training device for practicum.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2, 235-241.
- Luborsky, L., McLellan, T. A., Woody, G. E., O'Brien, C. P., & Auerbach, A. (1985). Therapist success and its determinants. *Archive of General Psychiatry*, 42, 602 - 611.
- Mallinck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the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2), 133-138

- Martin, D. J., Garske, J. P., & Davis, M. K. (2000). Relation of the therapeutic alliance with outcome and other variabl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438-450.
- Orwoll, L., & Perlmutter, M. (1990). The study of wise persons: Integrating a personality perspective. In Sternberg, R. J. (Eds.),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pp.160-17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isel, I. (2005). Wisdom's role in interactions of affects and cognition. *Studia Psychologica, 47*(4), 277-289.
- Sandell, R., Lazar, A., Grant, J., Carlsson, J., Schubert, J., Broberg, J. (2007) Therapist attitudes and patient outcomes: II. Therapist attitudes influence change during treatment. *Psychotherapy Research, 17*(2), 196-204.
- Smith, J., Staudinger, U. M., & Baltes, P. B. (1994). Occupational settings facilitating wisdom-related knowledge: The sample case of clinical psycholog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5), 989-999.
- Spengler, P. M., & Strohmmer, D. C. (1994). Clinical judgmental biases: The moderating roles of counselor cognitive complexity and counselor client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1), 8-17.
- Sternberg, R. J. (2003). *Wisdom, intelligence, and creativity synthesiz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정희 역 (2004), *지혜, 지능 그리고 창의성의 종합*. 시그마프레스.
- Stiles, W. B. (1989). *Use of the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Manuscript. Miami University.
- Tracey, T., Glidden, C., & Kokotovic, A. (1988). Factor structure of the counselor rating form-sh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330-335.
- Suit, J. L., & Paradise, L. V. (1985). Effects of metaphors and cognitive complexity on perceived counselor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1, 23-28.
- Tracey, T. J., & Kokotovic, A. M. (1989). Factor structure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3), 207-210.
- Van Wagoner, S.,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28*, 411-421.
- Vivino, B. L., Thompson, B. J., Hill, C. E., & Ladany, N. (2009). Compassion in psychotherapy: The perspective of therapists nominated as compassionate. *Psychotherapy Research, 19*(2), 157 - 171.
- Webster, D. (2003). An exploratory analysis of a self-assessed wisdom sca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0*(1), 13-22
- Wynn, R., & Wynn, M. (2006) Empathy as an interactionally achieved phenomenon in psychotherapy: Characteristics of some conversational resources. *Journal of Pragmatics, 38*(9), 1385-1397.
- Yang, Shih-ying. (2000). *Conceptions of wisdom among Taiwanese Chinese*. University of Y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원고접수일 : 2009. 12. 07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1. 16

게재결정일 : 2010. 01. 27

## Counselor's Wisdom, Counseling Processes, and Outcomes

**Sulim Lee**

Oregon State University

**Seong 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effects of counselor's wisdom on the quality of counseling processes and outcomes were investigated by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ata were obtained from 189 pairs of a counselor and client. While implemen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easurement model was validat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out assuming structural relation among latent variables. Two structural models were evaluated and compared based on the magnitudes of fit indices and appropriateness of parameter estimates. Finding in this study indicated that counselor's wisdom influenced the quality of counseling processes and outcomes through the four mediators (i.e. case conceptualization, countertransference, rapport formation, and working alliance). Specifically, counselor's wisdom affected case conceptualization and regulation of countertransference, and effect of case conceptualization and regulation of countertransference on the quality of counseling outcomes were mediated through the rapport formation and working alliance.

*Key words* : wisdom, counselor, wisdom development, client, structural equation model, case conceptualization, rapport formation, working alliance, counseling relationship, counseling process, counseling outcome